승리 목마른 광주FC, 제주서 '1승' 사냥 나선다

내일 제주월드컵경기장서
4경기 연속 승리 없는 광주
한 계단 차…중위권 '분기점'
제주 꺾고 분위기 반전 기대

광주FC가 19일 오후 7시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19라운드 제주SK FC와 원정 경기를 갖는다. 사진은 광주FC 헤이스가 지난 4일 제주와의 경기에서 뛰는 모습. 광주FC 제공

승리에 목마른 광주FC가 사생결단의 각오로 제주 원정길에 올랐다. 광주는 19일 오후 7시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19라운드 제주SK FC와의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최근 4경기에서 2무 2패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주춤하고 있다. 특히 지난 라운드 서울전에서는 3실점을 허용하며 패했고, 그동안 자랑하던 리그 최소 실점 2위의 기록도 위태로워졌다. 6승 6무 6패, 승점 24점으로 리그 8위에 머무르고 있는 광주는 이번 경기를 반드시 승리로 장식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이번 맞대결은 중위권 판도를 가를 중요한 승부가 될 전망이다. 제주는 6승 4무 8패, 승점 22점으로 9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6위 FC서울(승점 25), 7위 포항(승점 24), 8위 광주, 9위 제주가 불과 1~3점 차이로 촘촘히 포진해 있다. 단 한 경기 결과로 순위가 크게 바뀔 수 있는 만큼 광주와 제주 모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는 시즌 초반 부진을 씻고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다. 리그 3연승과 5경기 연속 무패(3승 2무)를 기록하며 9위에서 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다. 조직력이 안정되며 수비 실수가 줄었고, 공격진의 날카로움도 되살아났다. 반면 광주는 팀의 핵심 공격수인 아사니가 알바니아 대표팀에 차출돼 공백을 메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아사니는 이번 시즌 광주의 공격을 이끌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득점을 올린 주포다.

그러나 광주도 지난 서울전에서 가능성을 봤다. 김동화, 진시우, 홍용준 등 젊은 선수들이 선발로 나서 투지 넘치는 모습을 보였고, 점유율과 슈팅 수 등 주요 경기 지표에서는 서울과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결과는 아쉬운 패배였지만, 어린 선수들의 패기와 끈기는 베테랑 선수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있다. 팀 분위기 역시 위기감을 넘어 결속력 강화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광주가 기대를 걸고 있는 선수는 단연 헤이스다. 헤이스는 서울전 종료 직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격골을 터뜨리며 시즌 5호골을 기록, 팀 내 득점 선두로 올라섰다. 그는 이번 경기에서 친정팀 제주를 상대로 다시 한 번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지난 맞대결에서도 헤이스는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끈 바 있다. 이번에도 팀의 해결사 역할을 자임하며 그라운드를 누비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최근 제주 원정에서 4경기 연속 무패(2승 2무)를 기록하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정효 감독은 "젊은 선수들의 패기와 베테랑들의 노련함이 하나로 뭉쳐 반드시 승점을 가져오겠다"며 "선수들이 강한 동기부여를 안고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가 제주 원정에서 값진 승리를 거두고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경기는 광주가 중위권 경쟁에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김도영

박찬호

KIA 김도영·박찬호, 올스타전 팬투표 2차 집계도 1위

최형우, 지명타자 문현빈과 경쟁

KIA 타이거즈 박찬호와 김도영이 KBO 올스타전 팬 투표 2차 중간 집계에서도 각 부문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최고령 MVP' 기록을 갱신한 최형우(41)는 올스타전 베스트12에서도 역대 최고령 타자 도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BO는 지난 16일 2025 신한 SOL뱅크 올스타전 '베스트12' 팬 투표 2차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구 인기 구단 KIA는 나눔 올스타(KIA·LG·한화·NC·키움)에 속한 가운데 3루수와 유격수 부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3루수 김도영은 83만2618표를 획득하며 한화 노시환(59만6731표)을 39.52% 차이로 크게 앞섰다. 유격수 박찬호 역시 71만110표를 받아 NC 김주원(63만4685표)에 11.88% 의 격차를 벌렸다. 지난 1차 중간집계에서 김도영과 박찬호가 각 부문 2위와 비교해 각각 52.77%, 40% 이상 벌어졌던 것과 달리 차이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앞서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최형우는 올 시즌 5월 월간 MVP에 선정되며 KBO 최다·최고령 MVP 기록을 동시에 경신한 가운데, 4년 연속 올스타 베스트12 등극을 노리고 있다. 그는 현재 지명타자 부문에서 71만9563표를 받았으나 LG 문현빈(89만9852표)에게 뒤처진 상태다. 1차 중간집계 2만 7374표 차에서 18만 여표 차로 벌어졌지만 역대 사례를 볼 때 충분히 역전도 가능하다.

한편 올해 올스타전 베스트12 팬 투표는 폭발적인 관중 증가 추세를 반영하듯 뜨거운 참가 열기를 보이고 있다. 2차 중간 집계 결과 총 투표수 257만 7,376표로, 2024 올스타전 2차 중간 집계 때의 234만 1,719표 보다 약 10% 증가했다.

팬 투표는 오는 22일 오후 2시까지 진행되며 2025 올스타전 베스트12는 팬 투표 70%와 선수단 투표 30%를 합산해 오는 23일 최종 발표한다.

민현기 기자

광주체육중 근대5종 이루리, 문체부장관기 개인전 금메달

여중부 3종 개인전 총 846점 1위
양보민·김서현·한다예와 단체전 銅

광주체육중 근대5종 이루리(3년·사진)가 제3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ㄴ 이루리는 지난 15일 전남 해남 우슬체육공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자 중등부 3종 개인전 결승에서 수영(287점·2위)과 레이저런(사격+육상·559점 1위)을 합쳐 총 846점을 기록, 장서윤(서울체중 3년·824점)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루리는 지난 5월 경남 일원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전 여중부 근대3종 개인전에서 장서윤에게 놓친 금메달을 이번 대회에서 설욕했다.

이루리는 또 양보민(3년)·김서현·한다예(이상 2년)와 함께 출전한 여중부 3종 단체전에서 총 2949점(수영 1061점 3위·레이저런 1888점 3위)을 획득, 동메달을 합작했다.

광주근대5종연맹 이하준은 남초부A(1~2학년) 2종 개인전에서 총 535점(수영 261점 3위·육상 274점 2위)으로 김선욱(대구·540점)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 보치아 강선희·최아영, 베이징 월드컵서 금·은 획득

강선희 개인전 첫 금
최아영 연속 은메달

광주 소속 보치아 국가대표 강선희(한전KPS)·최아영(광주광역시장애인보치아연맹) 선수가 2025 베이징 월드 보치아컵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각각 목에 걸었다.

강선희는 지난 9일부터 열린 이번 대회 BC3 여자 개인전에 출전해 4강에서 싱가포르 선수를 5-1로 꺾은 데 이어 결승에서 일본 선수를 4-2로 제압하며 개인전 첫 금메달을 차지했다.

최아영은 BC2 여자 개인전 4강에서 일본 선수를 8-1로 이겼지만 결승에서 홍콩 선수에게 6-0으로 패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강선희

최아영

강선희는 2022년 처음 국가대표에 발탁된 이후 항저우 아시안게임 복식 금메달, 파리 패럴림픽 복식 은메달 등을 따내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개인전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 대회가 처음이다.

최아영은 국가대표 첫 해인 올해 태국 파타야 대회에 이어 두 대회 연속 개인전 은메달을 따며 BC2 최강자로 자리매김했다.

김서현 감독(광주장애인체육회 보치아 전문체육지도자)은 "국가대표의 체계적인 훈련과 광주장애인체육회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강선희의 첫 개인전 금메달과 최아영의 두 대회 연속 은메달 획득 등 좋은성적을 가져온 만큼 앞으로 국내 선수권대회와 9월 서울에서 열릴 월드 보치아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선수 개개인 컨디션 관리에 집중하고 체계적으로 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지난 태국대회에 이어 보치아에서 연달아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기쁘다"며 "두 선수가 대한민국 여자 보치아를 대표하는 선수로 더욱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